

6·25, 4·19, 5·18... 정론직필로 '역사의 물줄기' 바뀌

불편부당 63년

민족 상잔의 전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2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正論)을 편다'는 신념으로 출발한 광주일보는 4·19와 5·18 등 역사의 구비를 옮겼을 뿐 아니라 호남지역민과 함께 헤쳐왔다.

특히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제 조치에 따라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이 하나가 된 광주일보는 지방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 공동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독자의 알권리 신장에 앞장섰으며 공정한 보도와 날카롭고 격조 있는 칼럼 등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민선시대 이후 시작

하려 했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군화 밭에 짓이겨져 10일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두 신문이 광주일보로 통합된 이후 1989년 '5·18-그 후 9년'이란 5·18 첫 진상보도를 통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다양한 기획시리즈 등을 통해 못다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답게 역사적인 사건은 호외 발행 등을 통해 호남의 울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에도 호외발행 등을 통해 지역민과 슬픔을 함께했으며, 다양한 특집기사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겼다.

광주일보는 현대사의 굵직한 사안마다



1964년 5월 27일 광주 시내 곳곳에서 전남대·조선대생과 교고생들이 합세해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제외하고 굴욕적인 청구권 회담을 마무리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창간호 1면에 '휴전회담'기사·4·19 희생자 위문금 모금

4·19, 5·18 현장에서 피맺힌 시민들의 절규 대변 노력

다문화·아시아 인권 시리즈 등 민주·인권·평화 지킴이로

된 고질적 지역비리 척결에 앞장섰으며,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 엠네스티 언론상과 한국 기자상 등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인권을 위해 광주시 등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지 중 유일하게 내팔 지진 피해 현지 보도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민의 내팔 돌기를 이끌어 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사명감을 지켜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론직필 특종보도로 호남의 역사를 잇다=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는 파격적인 창간호 1면 휴전회담 기사를 통해 지역 대표 언론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방신문으로서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했으며, 날카로운 필봉을 내세웠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항상 선봉에서 지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또 1960년 4월 19일 교문을 박차고 나선 교고생들의 의거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4·19 광주 희생자 조위금 및 위문금 모금'을 주도했다. 4·19 때 광주시위의 발포 책임자 규명을 출가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 암흑기로 불리는 70년대 유신시대에도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할 정도로 정론직필은 시들지 않았다.

19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의 정국 속에서도 전남일보(옛 광주일보)가 41명은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임무를 다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은 수많은 특집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정의 확립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4·19 직후 희생자 유가족 돌기운동에 이어 지역개발 캠페인,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어린이 교통문화운동, 무등산 가꾸기 사업, 마을문고 도서 보내기 운동, 재소련 한글학숙설립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무등산 국립공원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을 뛰어넘어 다문화, 아시아의 인권을 품에 넣다=광주일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넘어,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국가적 흐름을 조기에 포착, 지난 2007년부터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4년여 동안 심층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취재는 물론 매년 외국에 특파원을 보내 다문화 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문화 문제를 4년여 동안 심층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전국 언론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본보의 다문화 시리즈는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으로 구성돼 각 시리즈마다 지역을 넘어 전국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첫 해에는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연재물을 1년간 진행했으며,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제



1987년 6월 29일 광주 남동성당 앞에서 신부와 수녀, 신도들이 모여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발표한 8개항의 특별선언을 환영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인이자 지역민이 된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진정한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 10·1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1년 한국신문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명예로운 7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광주일보는 민주·인권·평화의 지역 호남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근에는 광주를 넘어 아시아의 인권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인권의 만행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캄푹스푸



1963년 11월 취재전용기로 도입된 '무등산호'가 광주도심 상공을 지나고 있다.

주(州)에 광주진료소의 건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건립된 광주진료소는 주관단체인 (사)희망나무를 비롯한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지역 의약 5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첫 진료를 시작한 이후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을 받아온 캄보디아 주민에게 '광주 정신'전파와 함께 '광주 인술'(仁術)을 심어내고 있다. 광주일보는 캄보디아 광주진료고 건립

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시아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주일보는 최근에도 내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 현장에 지방지 중에서도 유일하게 현장 취재기자를 파견, 현지 상황을 상세히 보도해 지역민의 대대적인 네팔돌기 운동을 이끌어 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00

성취, 소통, 신뢰, 안전, 환경, 품질, 절약 “놀라움과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주) 유엔

주식회사 유엔텍

- 안전보건 법률준수와 지속적인 **개선활동!**
- 모든 임직원은 현장중심의 밀착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
-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 감동!**

(주) 유엔 (주) 유엔텍

대표이사 **김 동 채** (회장)
전남 여수시 월하동 1119
TEL : (061) 683-9777(9)
H·P : 010-4901-3885

(주) 유엔

T:061)683-9777 F:061)683-9780
발달·공정·사업장 종합 관리
시설관리·환경관리·물류관리

(주) 유엔텍

T:061)692-1767 F:061)692-1769
Plant Maintenance Service
Water Jet Cleaning System

555-290 전남 여수시 월하동 1119